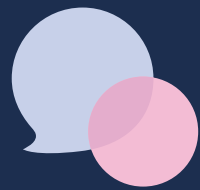


2022년 12월 호

국립국어원 온라인 소식지
《심표, 마침표.》



국립국어원 온라인 소식지
심표, 마침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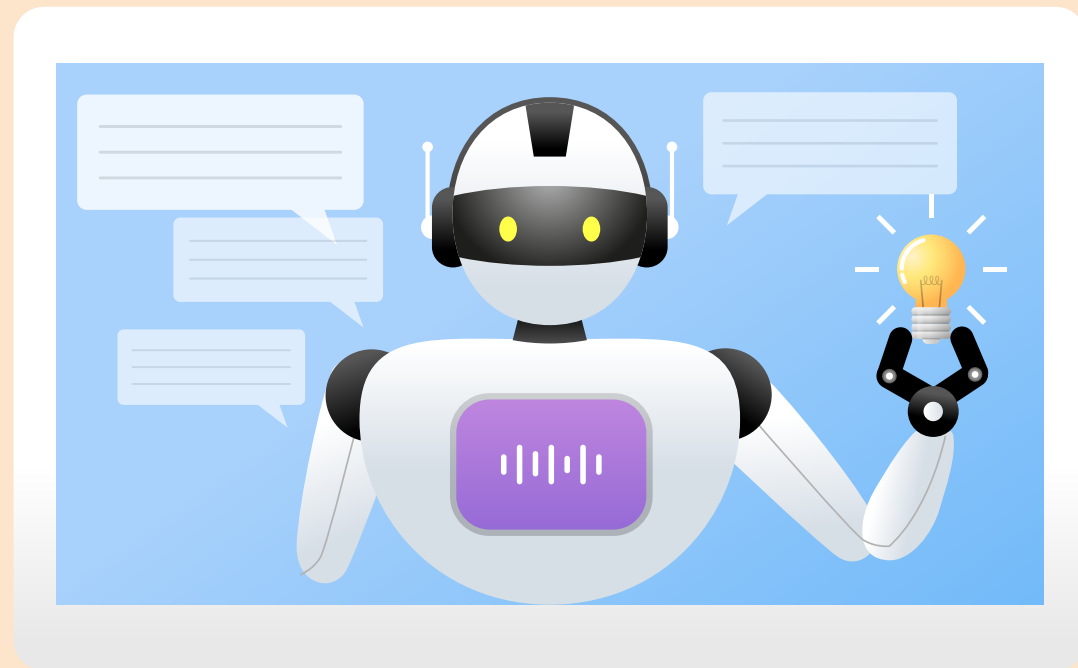


목차

국어 배우기_뭉치가 알려주는 국어 말뭉치 수어 말뭉치와 인공지능	3쪽
국어 배우기_문장 다듬기 실제 공문서의 문장을 다듬어 봐요!	9쪽
국어 알리기_살아 숨 쉬는 지역어 황순원 소설 둘러보기	11쪽
국어 알리기_이름이가 전하는 국어 소식 2022년 인공 지능 언어 능력 평가 대회 시상식 개최	13쪽
국어 바라보기_뉘은 말,다른 뜻 ‘지긋이’와 ‘지그시’	15쪽
국어로 함께하기 우리말 풀기	43쪽
국어 배우기_아 다르고 어 다른 우리말 정과 사랑	17쪽
국어 배우기_문장 다듬기 실제 공문서의 문장을 다듬어 봐요!	23쪽
국어 알리기_살아 숨 쉬는 지역어 박경리 소설 둘러보기	25쪽
국어 알리기_이름이가 전하는 국어 소식 관혼상제 용어 개선으로 세대 간 소통 활성화	27쪽
국어 바라보기_한국어 교육, 그리고 우리 바탕이 되는 말, 그 이름 모어	29쪽
국어 바라보기_우리말, 그리고 사람 우리 언어와 문화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33쪽
국어로 함께하기 우리말 풀기	47쪽

수어 말뭉치와 인공지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한규 책임연구원



말뭉치는 자연언어의 표본을 수집 가공한 데이터로서 대상이 되는 언어의 분석 또는 그 활용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규모와 체계로 구성된다.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자연어처리 기술 발전으로 말뭉치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우리가 인터넷에서 접하는 자동번역 기능은 대규모의 말뭉치를 학습시킨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한 대표적인 예이다. 인공지능은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로 모사한 뉴런(neuron)들을 다양한 차원의 층과 열을 이루어 모델을 구성하고, 데이터를 통하여 학습을 수행한다. 이때 학습에 사용된 말뭉치의 규모와 품질은 그 모델의 성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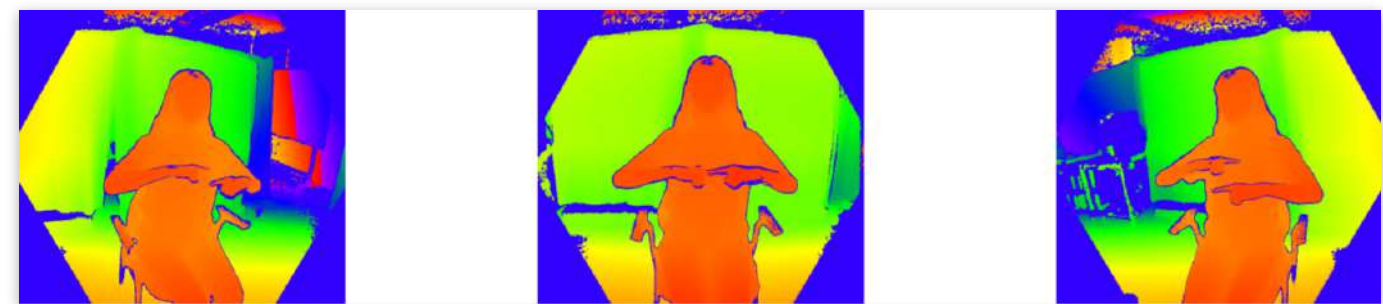
수어는 한국어와 동등한 지위를 갖는, 대한민국 농인의 공용어이다. 국내 청각장애인의 규모는 2022년 기준 40만 명 이상에 달하는데 이들의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수어통역사는 현재 약 2,000명 이하로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수어를 쓰는 농인의 정보 접근 강화와 사회 참여를 위한 소통 환경 개선을 위하여, 수어 및 관련 기술의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은 꼭 필요하다.

수어는 단순히 한국어를 단어 단위에서 손짓으로 옮겨 놓은 것이 아닌 자체의 문법과 언어적 특징을 갖는다. 다른 언어와 마찬가지로 수어 말뭉치는 언어 체계 측면뿐만 아니라 언어기술 연구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수어와 한국어 간의 기계번역을 위한 수어 말뭉치는 문장 단위의 한국어와 그에 대응하는 수어 영상으로 구성된 병렬말뭉치 형태이고, 수어 영상에 대하여 수어의 특징 정보를 설명하는 주석 정보가 추가된다. 손뿐만 아니라 신체에 의해 표현되는 수어 말뭉치의 주석 정보에는 수어 단어 단위의 글로스(gloss) 및 공간에서의 표현 특징, 머리/눈/코/입/어깨 등에서 나타나는 비수지 표현, 입술 모양(마우딩, mouthing) 등 다양한 정보가 포함된다.

수어는 한국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말뭉치 수집의 역사가 짧다. 청각이 아닌 시각 중심의 언어이며, 발성이 아닌 몸의 움직임을 기반으로 하는 언어의 속성상 수집의 어려움이 크다. 언어 정보의 획득 단계에서 일반적인 언어의 경우 음성 형태의 오디오 신호를 저장 후 문자 체계로 변환하는 인식 과정을 수행한다. 반면 수어는 인간의 신체를 통해 발화되며 영상 형태로 저장되어 관리된다. 영상은 음성에 비하여 획득 및 저장 단계에서부터 정보량의 차이, 접근성 등의 문제가 있다. 디지털화, 신호 압축, 저장매체 기술의 발전이 이를 덜어 줄 수는 있으나, 여전히 정보의 획득 단계에서의 어려움은 음성언어에 비하여 크다.

수어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의 요소를 수어소(chereme)라고 하며, 이는 한국어와 같은 음성 언어의 음소(phoneme)에 해당한다. 수어소에는 수지요소로서 수형, 수위, 수동, 수향이 있으며, 비수지 요소로는 손 이외의 얼굴, 몸에 나타나는 요소들이 있다. 말뭉치 제작을 위해서는 이러한 수어소에 대한 주석 작성이 필요한데, 지금까지의 방식은 언어 연구자들이 수집된 수어 영상을 보고 수작업으로 작성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었다. 이는 작성에 들어가는 인력과 비용의 문제를 야기하며, 이러한 말뭉치 제작의 고비용 문제는 수어의 체계화 및 응용기술 발전의 장애 요소 중 하나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사례와 함께 소개하고자 한다.

수어 말뭉치 작업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대상은 인간의 자세와 움직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사람의 신체로 표현되는 수어에 대하여 인간의 인식 과정을 추론해 보면 인간은 수어 발화자의 손과 팔, 몸통, 얼굴 등의 의미 있는 영역을 구분하고, 이들의 상태 및 변화를 인지한다. 수어 발화자의 신체를 구성하는 골격 및 관절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면, 수어 분석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인공지능 기술 분야에서는 게임, 가상현실,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등의 분야에서 인간의 자세 및 행위 인식을 위해 영상에서의 사람을 인식하고, 관절 정보를 추출하는 자세 추론(Human Pose Estimation) 인공지능 모델들이 최근 들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아래 그림은 정면, 좌, 우 3개 시점으로 수어 표현을 촬영한 후 깊이 정보 추출 및 자세 추론 기술을 활용하여 수어 발화자의 관절에 대한 3차원 관절 정보를 추출한 예이다. 그림에서 상단의 깊이 영상(depth video)은 3차원 공간상에서의 카메라로부터의 깊이 정보를 색상으로 표현한 것이며, 하단은 해당 동영상에 추출한 관절 정보를 같이 표시한 그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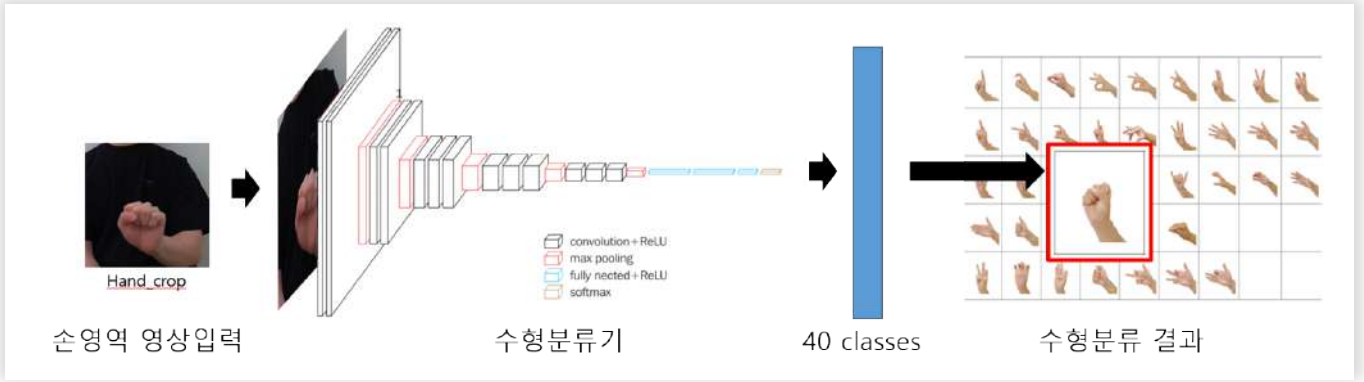


[깊이 영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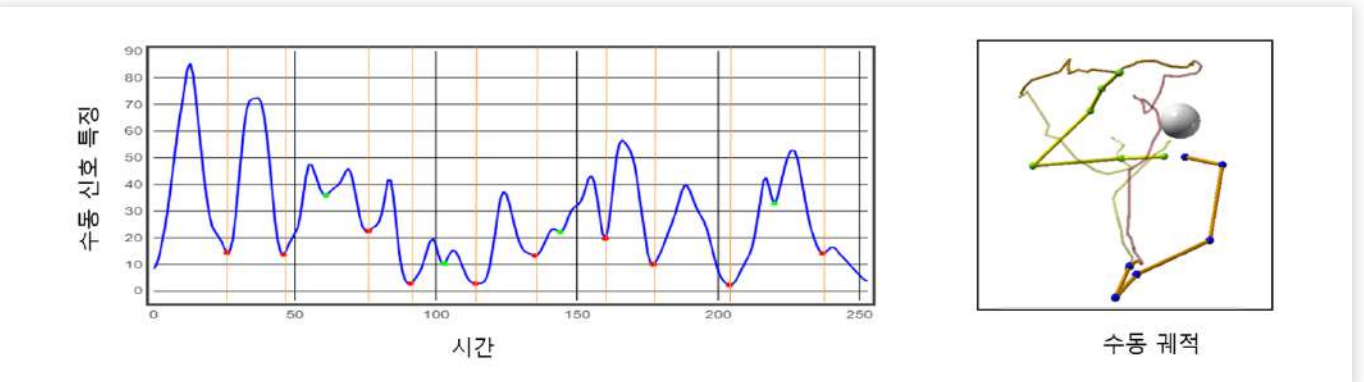


[입력 영상 및 관절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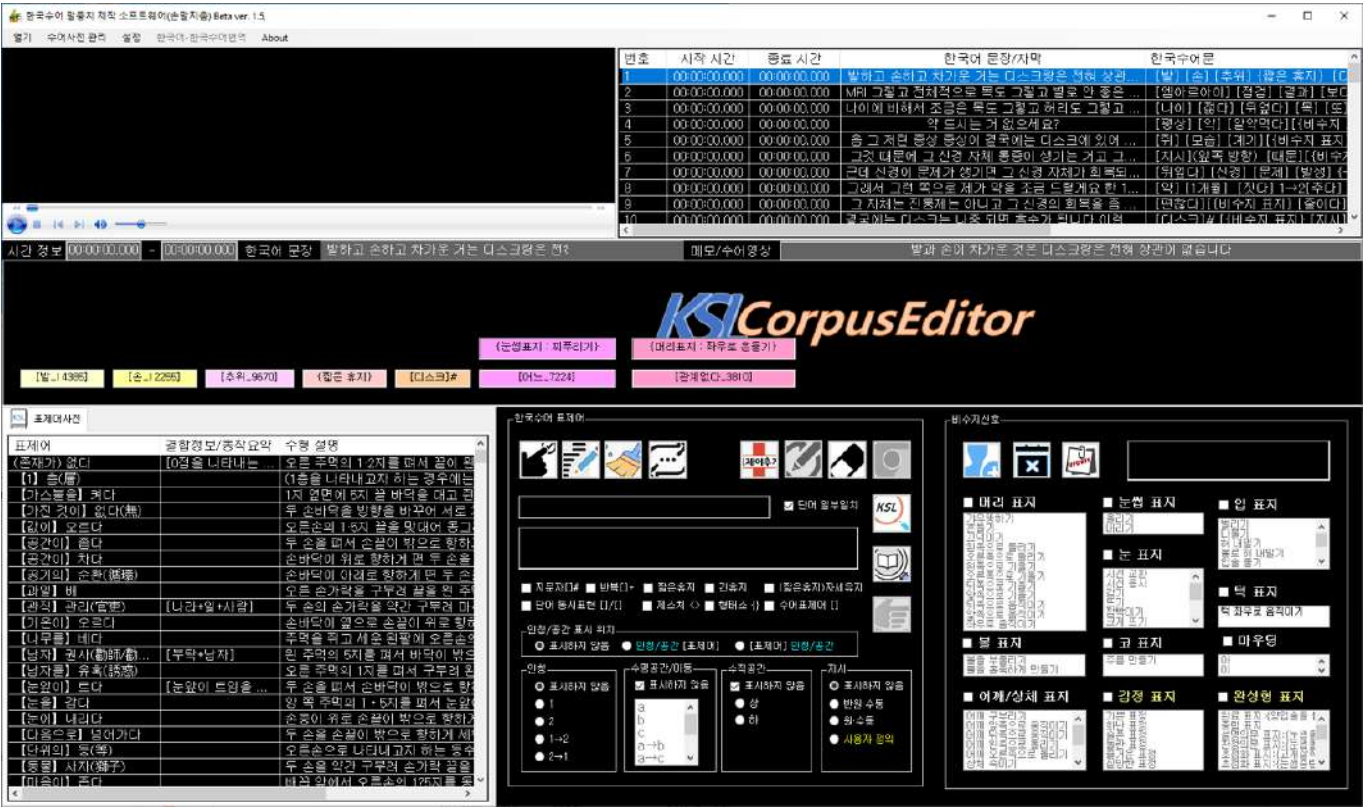
수어 영상에서 수어 발화자의 관절 정보를 알아내면, 신체의 부위별로 나타나는 수어소 정보를 분석할 수 있다. 수형소는 대표적인 수어소로서 수어에서 나타나는 의미 있는 손의 모양을 의미하며, 한국수어는 최대 60여 종의 수형이 제시되고 있다. 수어 영상 내에 나타난 수형소가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 영상 인식 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 아래의 그림은 수형 영상을 수집하여 학습한 인공지능 모델 기반의 수형 분류기의 한 예이다. 수어 영상에서 관절 정보에 의하여 손에 해당하는 관심 영역을 추출하고, 수형 분류기에 입력하여 수형을 기계가 인식하는 과정을 보여 준다.



수동은 손의 움직임을 의미하며, 수어에서 의미가 있는 수동을 수동소라 한다. 수동의 시작과 끝 그리고 궤적은 수어 영상 내 일련의 관절 동작 정보를 시계열상에서 분석하여 추출할 수 있다. 또한 수어소 중 수위는 수어 발화 시 손이 나타나는 유의미한 위치를 의미한다. 수위는 머리, 몸통, 비우세손 영역에서 세분화된 구분 체계를 가진다. 수동과 수위 역시 수어 영상의 관절 정보를 신호처리 및 기계학습 기술을 적용하여 분류하여 인식할 수 있다. 아래의 그림에서 왼편은 수어 영상의 시간 흐름에 따른 손의 위치를 분석하여 유의미한 움직임 구간을 분할한 결과이며, 오른편 그림은 이에 따른 손의 궤적(trajecory)을 표현한 것이다.



수어 말뭉치를 주석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수어 영상에 대응하는 수어 단어의 글로스를 붙인다. 글로스란 수어 단어에 지정된 한국어 이름이다. 또한 수어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손뿐만 아니라 얼굴, 몸 등 손 이외에서 나타나는 비수지 요소들이 존재하며, 이러한 수어 구성요소들을 주석 정보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수어의 구성 요소 정보들을 주석으로 작성할 수 있는 주석 표기 형식과 작성 도구가 필요하다. 국립국어원에서 2021년에 발간한 “한국수어문법”에서는 글로스 기반의 수어 표기 방법을 제시하였는데, 이를 주석 정보 형식의 정의를 위해 참고할 수 있다. 아래 그림은 한국수어 문법의 수어 표기 방식을 적용한 수어 주석 편집 도구 구현 예로서 글로스명과 함께 비수지 표지, 공간 표지 등을 복수의 층열로 작성한 것이다.



수어 말뭉치는 한국어-수어 자동번역, 수어 인식 등 다양한 응용기술 개발에 활용된다. 예를 들어 한국어-수어 병렬말뭉치를 인공지능 언어번역모델 학습에 적용하여 한국어를 수어로 번역한 후 아바타 객체에 적용하여 한국어 문장을 수어로 표현하는 아바타 수어 서비스를 현재보다 더 많은 방송 프로그램에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언어 연구용 수어 말뭉치의 주석 정보 생성 시 앞서 살펴본 수어소 분석 및 인식 기술을 적용할 경우, 온전히 사람이 직접 주석 작업을 진행하는 것보다 작업 시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수어는 한국어에 비하여 체계 정립과 말뭉치 구축이 더딘 상황이지만, 언어 분야와 인공지능 기술 분야의 협업을 통하여 언어의 체계 정립에 이바지하고 수어 응용 기술의 발전을 통해 청각장애인의 소통과 언어 정보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

문장 다듬기

실제 공문서의
문장을 다듬어 보세요!





대비내용 참조요청

공문서의 제목은 좀더 쉬운
말로 내용을 알 수 있게 써야 합니다.

○○○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관 유)

제 목 제18호 태풍 북상 대비·대응 전·단부

지난 7월부터 10월 초 현재까지 우리 시는 수차례의 태풍 북상에
대비하여 원주민 사전 대비와 대응 조치 추진으로 중의 대응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자부심을
배양하여 왔습니다.

태풍 북상에 접하여 대비하고 대응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습니다.
한 문장에 너무 많은 내용을 담으면 의미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문장을 의미 단위로 나누면 뜻이 명료해집니다.



이에 따라, 제18호 태풍이 우리 지역에 본격적인 영향을 주기 전인
10. 2.(수) 오늘 오후 2시로 부서별, 분야별로 『태풍』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
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 및 재해 대비조치에는 단 한 번의 태풍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 및 재해 대비에는 절대 허של함이 없어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불필요한 수사를 줄이면, 문장이 간결해지고 뜻을 명료하게 전달 수 있습니다.





1) 오래 프대, 수종 프프, 양수기를 꼭 설치하고, 빗물받이를 모두
점검함.
2) 가로변 쓰레기통 경박하고, 현수막 등은 제거함.
나. 재난 관리 부서는 분야별 태풍 북상 대비 조치를 오늘 중으로 철저하
이함

쓰레기통은 고정해 두고
'얼박'은 '발이나 손 등을 움직이지 못하게 묶는 것을 뜻하는 말로,
의미상 쓰레기통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고정해 두고 '안 고정'하면
의미도 모호되고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국립국어원 누리집에서
“공공언어 바로 쓰기”를 찾아보세요!



국립국어원 온라인 소식지
쉽표, 마침표.

10

문학 작품 속

살아 숨 쉬는 지역어

- 황순원 소설 둘러보기 -





살아 숨 쉬는 지역어

국립국어원

살아 숨 쉬는 지역어

국립국어원

내가 아무리 늙구 형들있기두서니 거랑질이 할 줄 아니?
〈죽 짓는 늙은이〉 중

지역어
거랑질

→

대응 표준어
동냥질

살펴보기

'거랑질'은 '거지나 동냥아치가 돌아다니며 돈이나 물건 따위를 거저 달라고 비는 짓'을 의미하는 평안도 방언입니다.
뜻이 비슷한 표준어로는 '동냥질'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장가락 손등에 맞은 말은 열집 애의 말에서 꽤 먼 거리를 두고 벗어나갔다.
〈알〉 중

지역어
장가락

→

대응 표준어
가운뎃손가락

살펴보기

'장가락'은 '가운뎃손가락'을 뜻하는 평안도 방언입니다.
다른 방언으로는 '당가락', '당손가락', '장손가락' 등이 있습니다.

살아 숨 쉬는 지역어

국립국어원

살아 숨 쉬는 지역어

국립국어원

두 마리의 개가 토장국 속에서 끓어날 즈음, 오른골을 꼬마드로 친득이 재워놓은 권동동장과 잠자리 날개같이 모시 고의적삼에 감돌은 쓴 똥똥이 박초시가 이곳 등산내 절가 이때에다 소주 두 되를 지워가져고 왔다.
〈목넘이 마을의 개〉 중

지역어
절가

→

대응 표준어
머슴

살펴보기

'절가'는 '부유한 농가에 고용되어 그 집의 농사임과 잡일을 해 주고 대가를 받는 사내'를 뜻하는 평안도 방언입니다.
뜻이 같은 표준어로는 '머슴'이 있습니다.
다른 방언형으로는 '절계'가 있습니다.

작가 정보

황순원(1915~2000) 소설가는 평안남도 대동 출신입니다.

1931년 <통광>에 <나의 꿈>을 발표하며 등단했습니다.

작가 특유의 사적이고 서정적인 문체를 통해 높은 예술적 성과를 거둔 작가입니다.

대표작으로는 <소나기>, <죽 짓는 늙은이> 등이 있습니다.



살아 숨 쉬는 지역어

국립국어원

문학 속 지역어가 더 궁금하다면
국립국어원 '지역어 종합 정보'를
살펴보세요



12

관혼상제 용어 개선으로 세대 간 소통 활성화



국립국어원(원장 장소원)은 11월 29일(화) 오후 3시 30분 국립국어원 강당에서 ‘2022년 국립국어원 인공 지능 언어 능력 평가 대회’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대회에서는 ‘국립국어원 속성 기반 감성 분석 말뭉치’를 대상으로 상품 후기에 나타나는 작성자의 상품에 대한 긍정 또는 부정 판단을 탐지하는 과제를 통해 인공 지능의 언어 능력을 평가하였다. 지난 9월 16일(금)을 시작으로 약 두 달간 국립국어원 모두의 말뭉치를 통해 대회를 진행하였으며, 210명의 참가자가 총 7,468건의 작품을 제출하였다.

수상자는 총 7팀으로 대상(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1팀, 금상(국어원장상) 1팀, 은상(국어원장상) 1팀, 동상(국어원장상) 2팀, 특별상 2팀(엔씨소프트 특별상, 케이티융합기술원 특별상)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인 대상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가천대학교 1인 1메뉴’ 팀이 수상하였으며, 금상은 ‘지시유(GCU) 텀프 지옥’ 팀이 수상하였다. 수상자는 엔씨소프트, 케이티, 엘지전자, 네이버 등의 후원 기업에 입사 지원 시 채용 전형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다.

국립국어원은 연 1회 운영해 오던 인공 지능 언어 능력 평가 대회를 내년부터 상시 운영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로써 인공 지능 관련 연구자 및 개발자들이 언제든지 필요할 때 국립국어원의 평가 말뭉치를 활용하여 자신이 개발한 시스템의 성능 평가를 진행하는 등 인공 지능 연구 개발에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국립국어원

답은 말, 다른 뜻

“이 음악을 감상할 때 눈을 **지긋이** 감고 들어보세요.”

이 음악을 감상할 때 눈을 **지긋이** 감고 들어보세요.

지긋이 듣는 거면 참을성 있게 들으라는 말씀이신가요?

위 대화에서는
‘지긋이’와 ‘지그시’를 잘못 써서 오해가 생겼습니다.

답은 말, 다른 뜻

이제는 잘 구별할 수 있겠죠?
더 궁금하다면 “**한글 맞춤법**”과
“**표준국어대사전**”을 찾아보세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알립니다
2022년 2분기 표준국어대사전 정보 공-
국립국어원 네트워크 환경 개선 작업으-
2022년 1분기 표준국어대사전 정보 공-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답은 말, 다른 뜻

“이 음악을 감상할 때 눈을 **지긋이** 감고 들어보세요.”

“이 음악을 감상할 때 눈을 **지그시** 감고 들어보세요.”

‘지긋이’는 ‘나이가 비교적 많아 등직하게’ 또는 ‘참을성 있게 끈지게’를 뜻하는 말이고, ‘지그시’는 ‘술머시 힘을 주는 모양’ 또는 ‘조용히 참고 견디는 모양’을 뜻하는 말입니다. 앞선 대화에서는 “이 음악을 감상할 때 눈을 **지그시** 감고 들어보세요.”와 같이 써야 합니다.

바른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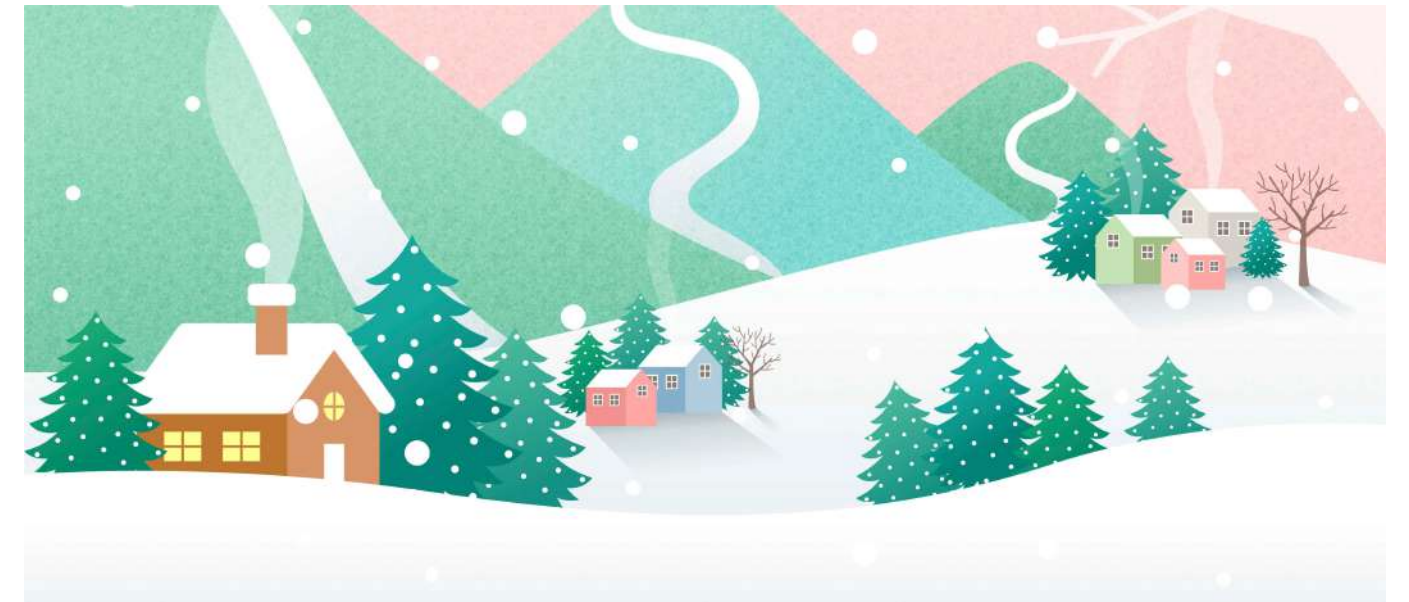
그는 나이가 **지긋이** 들어 보입니다. / 중요한 문제는 **지긋이** 많아서 풀어야 합니다.
아픔을 **지그시** 참고 있습니다. / 손가락으로 그곳을 **지그시** 눌러 주십시오.

정과 사랑

같은 듯 다른 쓰임새



사계절 중 가장 추운 계절인 겨울이 돌아왔다. 우리가 겨울을 춥게 여기는 것은 단지 기온이 떨어지기 때문만은 아니다. 떨어지는 온도만큼 사람의 정이 더욱 그리워지기 때문에 몸도 마음도 시려 오는 것이다. 바꿔 말해서 사람들과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눈다면 아무리 매서운 영하의 날씨도 견딜 만한 것이 된다. 우리 삶에 온기를 더하는 ‘정’과 ‘사랑’은 어떻게 다르고 어떤 상황 속에서 쓰이는 걸까?



정’의 가장 일반적인 정의는 ‘어떤 사람이나 동물과 오랫동안 함께 지내면서 생기는 친근한 마음’이다. ‘정이 들다, 정이 가다, 정을 쌓다, 정을 나누다, 정을 주다, 정을 쏟다’ 등의 예는 대체로 그 같은 정의와 잘 들어맞는다. 어떤 사람이나 동물과 정이 들거나 정을 쌓거나 정을 나누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한 공간에서 함께 지내거나 자주 만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함께 어울리면서 희로애락을 같이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마음이 열리고 허물없는 사이가 된다.

그렇지만 정이 반드시 사람과 사람(또는 동물) 사이에서만 생기는 것은 아니다. 장소나 물건, 일 등에 대해서도 정이 생길 수 있다. ‘정든 고향’, ‘정이 가는 물건’, ‘화초 기르기에 정을 붙이다’ 등의 예는 사물과의 관계에서도 정이 생겨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이 경우에는 ‘사물을 오랫동안 접하면서 생기는 친숙한 마음’이 좀 더 합당한 정의라 할 수 있다.



어떤 문맥에서는 정이 좀 더 넓은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추모의 정, 회황의 정, 석별의 정, 연민의 정, 흠모의 정’과 같이 감정을 함의하는 명사와 함께 쓰이는 정은 친근하거나 친숙한 마음이라기보다 어떤 감정이나 기분을 느끼는 마음을 뜻한다. ‘고운 정, 미운 정’이라고 할 때의 정도 ‘곱게 여기는 마음, 미움을 느끼는 마음’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의 정이라고 할 수 있다.

- ㉠ 이웃에게 사랑을/정을 베푼다
- ㉡ 자식에게 사랑을/정을 쏟다
- ㉢ 부부의 정/사랑, 혈육의 정/사랑

- ㉠ 그는 그녀를 보는 순간 사랑에/정(X)에 빠지고 말았다.
- ㉡ 두 사람은 여러 해 동안 한술밥을 먹고 지내면서 정이/사랑(X)이 들었다.

사랑에 빠질 수는 있지만 정에 빠지기는 어렵고, 정이 들 수는 있지만 사랑이 들 수는 없다.

이 같은 호응어의 차이는 두 단어의 상이성을 함축적으로 보여 준다. 곧 사랑은 순식간에 빠르고 뜨겁게 일어나므로 눈에 빠지듯 빠질 수밖에 없고, 정은 오랜 시간에 걸쳐 은근하게 일어나므로 과실에 맛이 들 듯 혹은 잎에 단풍이 들듯 시나브로 들 수밖에 없다. 사랑은 불붙기도 하고 사랑에 눈멀 수 있는 반면, 정은 불붙어 눈멀 수는 없지만 오래도록 쌓아 가면서 깊어지고 두터워질 수 있다. 이렇듯 사랑과 정은 진행 속도와 열정의 강도에서 상이한 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 ㉞ 그날 밤 두 사람은 걱정적인 사랑을/정(X)을 나누었다.
- ㉟ 그날 밤 두 사람은 은밀히 정을/사랑(X)을 통했다.

‘사랑을 나누다’와 ‘정을 통하다’는 둘 다 성관계를 맺는 것을 가리킬 수 있으나, 둘의 어감은 다르다. 사랑을 나누다는 말은 연인 사이의 성관계를 에두르거나 중립적으로 표현한 것이지만, 정을 통한다는 말은 간음과 같은 성관계를 부정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한편 정은 ‘모정, 부정, 애정, 연정, 온정, 우정, 인정, 치정’과 같은 한자어와 상하의 관계를 이루는데 애정, 인정과는 부분적 유의어 관계를 이루기도 한다. (‘정을 쏟다’나 ‘정을 주다’의 정은 애정으로 바꿀 수 있고, ‘정이 많다’나 ‘정이 넘치다’의 정은 인정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정과 사랑은 고유어와 결합하여 다음과 같은 복합어를 만들어 낸다.

- ㊦ 덧정, 속정, 옛정, 잔정, 첫정, 풋정
- ㊧ 내리사랑, 속사랑, 옛사랑, 짝사랑, 참사랑, 첫사랑, 치사랑, 풋사랑

속정과 속사랑, 옛정과 옛사랑, 첫정과 첫사랑, 풋정과 풋사랑은 정과 사랑이 그러하듯 닮은 듯 다르다. 가령 옛정은 지난날에 맺은 정, 옛사랑은 옛날에 맺었던 사랑을, 풋정은 채 모르익지 않은 정, 풋사랑은 서툰고 풋풋한 사랑을 가리킨다.

바야흐로 정과 사랑이 더욱 그리워지는 계절이다.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보며 도움이 필요한 곳은 없는지 살펴봐야 할 때이다. 때로는 따뜻한 안부 인사를 건네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의 얼어붙은 마음이 녹아내리기도 한다. 이 세상은 나 홀로 살아가는 곳이 아니라 이웃들과 함께 관계하며 살아가는 곳이다. 부지런히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눈다면 인생의 겨울도 견딜 만한 것이 되며 오히려 꽃이 피어나는 기적을 보게 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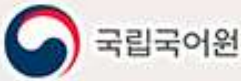
글: 강은혜

※ 참고 자료
안상순, 『우리말 어감 사전』, 도서출판 유유, 2021.



문장 다듬기

실제 공문서의 문장을 다듬어 보요!



10월 초

'초'는 '어떤 기간의 처음'이나 '초기'를 뜻하는 의존명사입니다. 의존명사는 앞말과 띄어 씁니다.

수차례

'수차례'는 한 단위 '여로'로 붙여 써야 합니다.

1. 지난 7월부터 10월 초 현재까지 우리 시는 수 차례의 태풍 복상에 힘써 전방위적으로 태풍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

'금번처럼 어려운 한자어는 쉬운 우리말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으로 고쳐 쓰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법부터

'부터'는 법외의 시작을 나타내는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써야 합니다.

2. 금번 제18호 태풍은 지역적인 영향으로 태풍이 태풍 지역을 통과할 때 집중폭우가 강하게 분다는 기상청 예보가 있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100~300mm(많은 곳 500mm)이며, 28일 법부터 4월 새벽까지 강한 바람이 불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포대/자루

대대는 일본식 한자어입니다. 포대, 자루처럼 쉬운 우리말로 대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18호 태풍 대비·대응 조치 요령

가. 동 지방에서는 오늘(10. 2. 수) 13시부터 중추전 당일 음력 추 수 당일 휴일 대체 휴일에서 근무하며 태풍에 대비 1) 오일(대) 수동 원장, 영수기를 꼭 설치하고, 비상방비팀 모두 참석함. 2) 가용한 선제기동은 고장해 두고, 영수함 등은 제거함 재난 관련 문서는 분야별 태풍 복상 대비 조치를 오늘 중으로 철저히 이행 나. 재난 관련 문서는 오일(대) 태풍 복상 대비 조치를 오늘 중으로 철저히 이행 다. 오늘(10. 2. 수) 17:30, 시정남 주재 상황 판단 회의 시 조치 사항 보고 별첨 1. 1. 사전 점검 조치 사항(제18호 태풍) 2. 비상요구 사항 1부 2. 태풍 대비 준비 사항(무지개) 1부 3. 제18호 태풍 관련 및 태풍 상황 보고서 1부, 끝.

점검표

외국어인 제3라스트 대신 우리말로 '점검표'를 쓰면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국립국어원 누리집에서

"공공언어 바로 쓰기"를 찾아보세요!



국립국어원 온라인 소식지

심표, 마침표.



관혼상제 용어 개선으로 세대 간 소통 활성화

국립국어원(원장 장소원)은 어려운 한자 용어와 낯선 외국어로 인해 언어생활에 불편을 끼치고 세대 간 소통에 지장을 주던 관혼상제 용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

국립국어원은 성균관, 한국고전번역원, (사)한국여성단체협의회, (사)한국여성의전화, (사)대한장례지도사협회, (사)한국웨딩플래너협회, 전국국어교사모임 관계자와 국어학자 등으로 이루어진 위원회를 구성, '22년 3월부터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검토회의를 개최하였다. 그 후 이 회의에서 마련한 대안어에 대해 학계와 관련 단체,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에 의견을 조화한 후 최종적으로 49개의 관혼상제 용어의 대안 용어 목록을 만들었다. 이들은 관례 용어 2개, 혼례 용어 22개, 상례 용어 22개, 제례 용어 3개이다.

이번 제안 목록은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언어 표현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세대나 분야 간 갈등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기존 한자 용어와 새로운 쉬운 용어가 공존하도록, 그리고 굳이 쓰지 않아도 될 외래 용어나 거의 쓰지 않아 뜻을 알기 어려운 일부 한자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꾼 것이다. 예를 들면, 혼례 용어 '웨딩홀'이나 '베뉴'와 같은 외국어는 '예식장'으로 대안어를 마련했고,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쓰는 '피로연'은 '피로연(뒤풀이)'으로 나란히 쓰도록 하였다. 또 상례 분야에서 '근조, 부의, 조의'와 같은 말이 쓰이고 있으나 최근에는 그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늘고 있어서 '삼가 명복을 빕니다.'나 '고이 잠드소서.'와 같은 표현으로 대체하도록 대안어를 제안했고, '조의금'이나 '부의금'은 '조의금(위로금)', '부의금(위로금)'을 제안했다. 만들었다. 이들은 관례 용어 2개, 혼례 용어 22개, 상례 용어 22개, 제례 용어 3개이다.

국립국어원은 앞으로 이 알기 쉬운 관혼상제 용어를 관련 기관 등에 배포하고, 국어문화학교 강의 등을 통해 널리 알릴 예정이다.

알기 쉬운 관혼상제 용어 목록은 '국립국어원 누리집 > 자료 > 기타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기 나라의 말을 ‘모어(母語)’라고 한다. 이 말은 주로 외국에 나가 있을 때 자기 말을 이르는 것이다. 모어와 모국어는 같은 말일까? 한국말을 모어로 쓰는 대부분의 사람에게 이 둘은 비슷한 말이다. 그러나 한 국가가 여러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 모어란 곧 자기 민족의 말이다. 이러할 때 모어와 모국어는 다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모어란 그저 외국어에 대비되는 말이 아니란 점이다. 모어의 가장 기본적 의미는 자라면서 배운, ‘바탕이 되는 말’이다. 그러면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자라나면서 배운 말이란 어떠한 것인가? 잠시 모어의 뜻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글이 하나 있다. 1932년, 일본인이 한국말을 배우던 책 <조선어회화>의 한 면을 펼쳐 보자. 제34일 차, 배울 내용은 ‘교육’에 관한 것이다. 두 사람이 당시의 교육을 주제로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주고받는 말을 현대어로 옮겨 본다.



바탕이 되는 말, 그 이름 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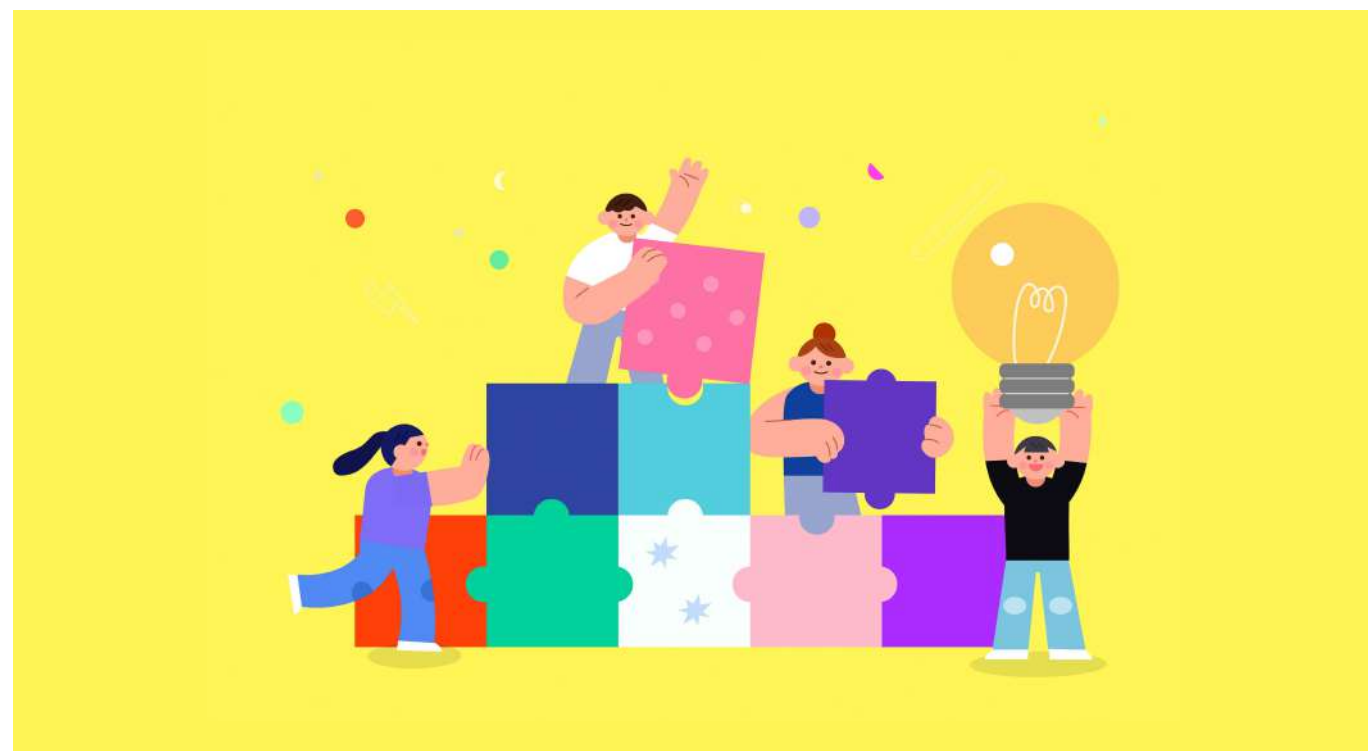
이미향(영남대학교 글로벌교육학부 교수)

가: 댁의 아이는 글방에 다닙니까?
 나: 모두 학교에 입학시켰습니다.
 가: 올해 몇 학년입니까?
 나: 보통학교 일학년입니다.
 가: 공부에 힘씁니까?
 나: 공부를 무던히 합니다.
 교사는 부지런히 가르치고 학생은 열심히 공부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부모들의 대화는 똑같아 보인다. 위 대화에서 ‘글방’과 ‘학교’가 대비되어 있다. 글방은 전통적인 교육 기관일 터이고, 이 말에 ‘신식 학교’에 입학시켰다는 부모님은 목에 꽤 힘을 주고 말하는 기분이다. 짧은 대화 중에 ‘몇 학년, 일학년, 공부에 힘쓰다, 무던히 하다, 부지런히 가르치다, 열심히 공부하다’와 같은 표현이 들어가 있다. 신교육이 시작된 당시에는 교육 분야와 관계된 말이 새로운 표현으로 선정되곤 했다.

나: 학과를 말하면 국어, 조선어, 산수, 한문, 작문, 습자, 도화, 지리, 역사, 물리, 화학, 체조 대개 그렇지요. 산술은 그중에 어렵습니다. 국어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일 년만 배우면 대강 알아듣습니다. 2학년부터는 전혀 국어로 가르칩니다. 운동은 좋아하는 아이도 있고 좋아하지 않는 아이도 있습니다.

부모의 자라는 계속된다. 신식 학교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배우는지 그때 일반인들은 궁금했을 것이다. 이어지는 말에 ‘교과목’이 있다. 국어, 산수, 한문, 지리, 역사 등 익숙한 교과목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물리, 화학까지 나온다. 그런데 의아한 부분이 있다. 우선 ‘국어, 조선어’ 순으로 나온 교과목의 순서이다. 조선어는 당시 조선의 말일 테니 지금의 한국말이다. 그러면 조선어보다 앞에 나온 ‘국어’는 무엇인가? 이어지는 말을 보면 그 답이 나온다. 국어는 별로 어렵지 않고, 일 년만 배우면 대강 알아듣는다고 한다. 오히려 별로 어렵지 않다며 배워보라고 격려하는 모양새이다.



과연 일 년만 배워 대강 알아듣는 말이 ‘국어’란 말인가? 일본어를 ‘나라의 말’로 포장한 것 이 아닌가? 그렇다. 이 이야기는 조선어를 외국어로 배우고, 외국어였던 일본어를 국어로 만나던 어두운 시기의 이야기이다. 대화에서 이르기를 2학년부터는 조선어도 쓰지 않는다는데, 조선어는 일본어로 소통이 어려운 1학년이 잠시 일본어를 배우는 도구로 활용된 것일까? 짧은 이야기 속에 한 세기 전의 풍경이 담겼다

언어학에서는 모어를 언어 발달 과정에서 바탕이 되는 말로 본다. 그 말로 배우고, 그 말로 생각하고, 그 말로 삶을 이어 간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모어는 아이들과 소통하다가 후세에게 남겨 주는 말이다. 모어는 그저 의사소통하는 도구가 아니다. 그러니 ‘알아들으면 되지’라거나, ‘뭘 그리 따져?’로 응답할 유형에 속하지 않는다.

지난 2년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익숙해진 건강 문진표를 떠올려 보자. ‘예/네’의 상대어는 ‘아니요’지만, 대부분 서류에는 ‘아니오’가 적혀 있다. 보험 회사의 서류, 회원 가입을 위한 질문지뿐만 아니라,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보내는 가정통신문까지 ‘아니오’라고 적혀 있는데, 이런 오류에 주목하지 않는 이가 많다. 영어 철자나 한자를 쓰다가 표기를 잘 모르면 사전을 찾는 데 비해, 우리말 사전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찾아보지 않기 때문이다.

모어란 한 세기 전의 저 말대로 대강 알아들으면 안 된다. 한국어 교실에 있는 우리는 한국어를 모어로 하지 않는 이들에게 가장 맞는 말을 보이고자 늘 힘쓴다. 자신의 말인 모어는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누구도 대신 지켜 주지 않는다. 그때의 ‘국어’라는 말처럼, 말에는 이데올로기가 들어 있다. 모어는 우리 삶의 바탕이 되는 말로,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니다

우리 언어와 문화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영남대학교 글로벌교육학부 이미향 교수



《선표, 마침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국립국어원 소식지 독자 여러분께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이미향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국립국어원 소식지 독자 여러분께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어를 사랑하는 이미향입니다. 지난 30년 세월 동안 저를 소개할 때 이 말로 인사했습니다.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친 지 26년이 되었고요. 지금도 학부 강의실에서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썰표, 마침표**》 국립국어원 소식지에 교수님의 〈한국어 교육, 그리고 우리〉가 연재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재미를 넘어 생각할 거리를 남기는 통찰력이 돋보이는데요. 집필 과정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이미향 무엇보다 독자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말로 쓰려고 해요. 논문도 아닌데 어렵게 쓸 이유가 없죠. 전공자가 아닌 일반 독자는 글이 어려우면 읽지 않습니다. 쉽고 편하게 다가가는 것이 첫 목표고요. 두 번째 목표는 우리 말이 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 있다는 사실을 열심히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 별생각 없이 쓰는 말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는 거죠. 특히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은 잘못 가르치지 않아야 하니 그 부분을 강조합니다.

《**썰표, 마침표**》 〈한국어 교육, 그리고 우리〉와 관련한 질문을 좀 더 드리고자 합니다. 집필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으시는지요?

이미향 글을 쓰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죠. 언제까지 써낼 수 있을까 의구심도 들고, 때로는 자책감도 들고, 여러모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나 마찬가지예요. 한 편의 원고를 제출하고 돌아서면 또다시 다음 원고 소재를 골몰하게 되는데요. 제게는 일찍부터 터득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국어사전을 선물 받았는데, 그것을 대학교 4년 내내 들고 다니면서 읽고 또 읽었습니다. 단어와 문장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스스로 질문을 던지다 보면 우리 말에 대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이어지거든요. 어떤 단어는 사회 현상과 연계하여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이를테면 ‘되모시’라는 순우리말이 있는데, 지금 우리 말로 치면 ‘여자 돌싱’이에요. 하지만 돌싱과는 달리 부정적인 뉘앙스를 갖고 있죠. 왜 그럴까, 혹시 이혼한 남자를 가리키는 말은 없을까, 어째서 이런 말이 생겨난 것일까 등등 생각을 거듭하면 당대의 사회 풍조를 주목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질문을 던지게 되고요. 이게 다 사전을 가까이하는 습관 덕분이랄까요. 다행히 원고에 대한 아이디어가 마르지 않고 있습니다. (웃음)

《**썰표, 마침표**》 〈한국어 교육, 그리고 우리〉와 관련한 질문을 좀 더 드리고자 합니다. 집필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으시는지요?

이미향 여러 나라 출신의 한국어 학습자들을 만나다 보면 한국과 문화적으로 다른 점이 오래 기억에 남아요. 이를테면 ‘목요일’의 사례가 있는데요. 한번은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주말에 보통 뭐 하는지 물어본 적이 있어요. 중국 학생과 미국 학생들이 ‘집에서 쉬어요’, ‘장을 보러 가요’, 라고 대답을 했는데 파키스탄 학생들이 ‘실험실에 가요’, ‘도서관에 가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뭔가 이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파키스탄 학생은 주말을 목요일로 계산해서 말한 거였어요. 파키스탄은 이슬람 국가이고 금요일에 다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요. 문화의 차이에서 비롯된 오해랄까요. 주말뿐만 아니라 저녁 시간에 대한 이해도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요. 한번은 파키스탄 학생들에게서 식사 초대를 받았어요. 저녁을 함께 먹기로 해서 오후 6시쯤 일행과 함께 기숙사로 찾아갔죠. 놀란 눈으로 우리를 맞이해서 처음에는 잘못 온 줄 알았어요. 음식 냄새도 안 나고요. 앉아서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녁 여덟 시가 되니까 밀가루를 반죽하고 굽는 등 본격적으로 요리를 하더군요. 9시 반쯤 식사를 시작해서 11시 넘어 마쳤는데요. 알고 보니 파키스탄 고향에서는 저녁을 늦게 먹는 풍습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저녁 식사를 약속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몇 시에 저녁 식사를 하자고 약속해야 했던 거죠.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말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나라의 문화를 알지 못한다면 말은 배워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니깐요.

《**썰표, 마침표**》 그렇다면 반대로 외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 고유의 문화를 생각해 보는 일도 가능하겠군요.

이미향 맞아요. 가령 ‘안녕’은 학생들이 제일 처음 배우는 말이고 또 늘 듣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주위 한국 사람에게 물어보면 대답하지 못하는 말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은 ‘안녕’이 무슨 뜻인지 궁금해합니다. 안녕이란 별일 없이 편안하다는 뜻인데요, 서로에게 이 말을 묻는다는 것은 안녕하지 못할 때이겠지요? 상대에 대한 관심과 염려가 깃들어 있는 이 ‘안녕’을, 저는 학생들에게 ‘너와 나의 평화를 비는 인사말’이라고 말합니다. 학생들은 인사말을 배우면서 한국 사람들의 생각도 공유하게 됩니다.

《심표, 마침표》 우리 자신이 우리 언어와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일도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미향

경북대에서 한국 대학생들에게 우리 언어문화를 15개 학기 동안 가르쳤는데요, 그때 대학생 상당수가 ‘우리 말에 이런 뜻이 있었느냐, 처음 알았다’와 같이 반응하더라고요. 당시에 교실 맨 앞에 앉아서 필기를 하던 남학생이 생각납니다. 우리 말의 어원이나 속뜻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배우던 친구였어요. 그 남학생이 졸업하고 취직한 뒤에 다시 만났는데, 반가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이 신입사원들 중에서 제일 인기가 많은데, 그 이유가 우리 말과 문화에 대한 지식 때문이라고요. 강의 시간에 공부했던 것들을 사담에 적절히 섞어서 이야기하니 사람들이 재미있어하더라고요. 우리 말과 문화에 대한 관심이 나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으로 이어진 거죠. 그 남학생 외에도 비슷한 사례를 여러 번 겪으면서 관련 수업과 교재가 꾸준히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심표, 마침표》 교수님께서 집필하신 한국어 관련 교재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주세요.

이미향

시중에 우리 문화를 다룬 책은 많아요. 하지만 한국어 학습자들이 무엇을 가장 궁금해하는지 고려하는 책은 보기 드물죠. 예를 들면 우리 말 중에 ‘호랑이 선생님’이란 말이 있는데, 왜 하필 호랑이인지 궁금할 수 있잖아요? 또 여학생의 경우 한국에서 쇼핑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면 아저씨나 아줌마가 자신을 ‘언니’라고 부르는 상황에 마주치는데, 마찬가지로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시각, 미각, 촉각을 다양하고 맛깔나게 표현하는 점도 학습자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요. 이처럼 학습자들이 궁금해하는 한국 언어문화 사례를 한 권의 책으로 엮어냈습니다. 2020년에 발간된 ‘한국어를 배울 때 알아야 하는 한국의 언어문화’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베트남에서 현지어로 발행되어서 교육 현장에서 쓰이고 있고, 튀르키예 대학에서도 현지 언어로 번역 작업을 하는 중이에요. 학생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한국어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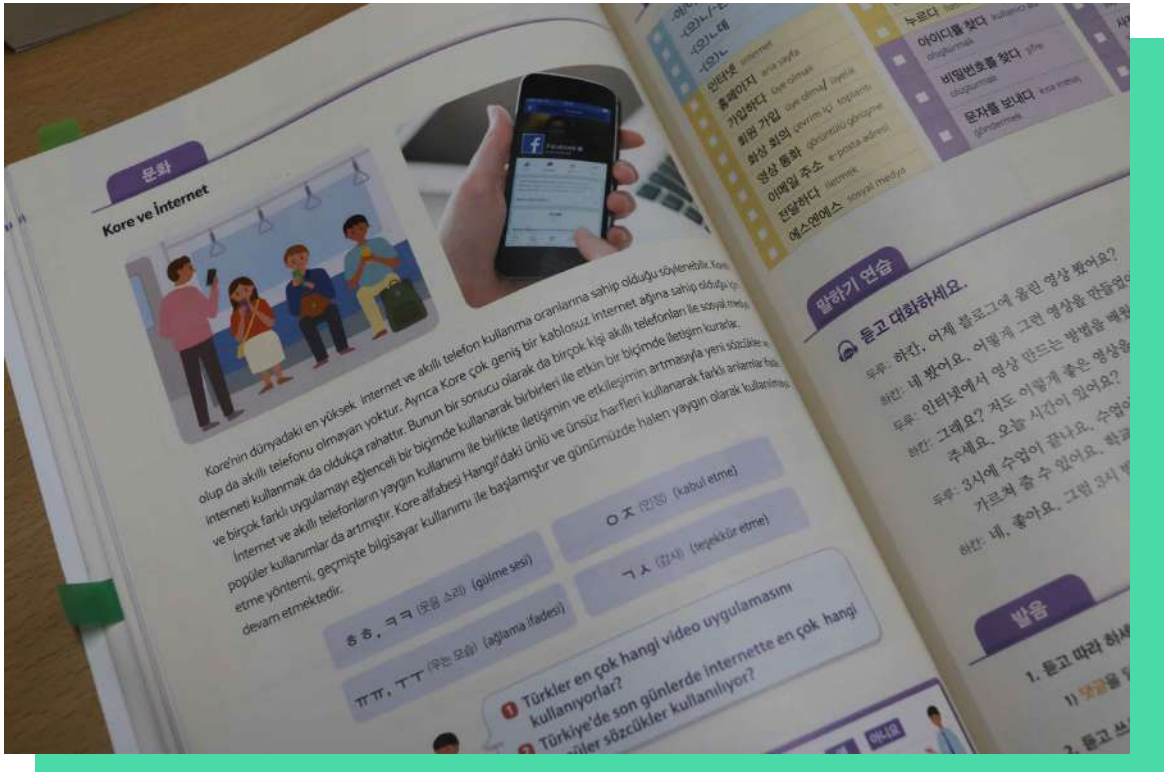
한국어 예비 교사를 위한 교재도 2020년에 발간했는데요. 한국어 교재를 알고, 교재 활용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된 교재예요. 한국어 교재의 뜻과 기능, 교재 연구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날 한국어 교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책이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심표, 마침표》 현재 국립국어원은 튀르키예 중등학교용 한국어 교과서 개발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미향

튀르키예 현지를 고려한 한국어 교과서를 만들고 있는데요. 등장인물들의 이름을 보면 ‘마이클’, ‘제니’처럼 미국식이 아니라 튀르키예식 이름이에요. 교과서에는 튀르키예의 공휴일과 국경일이 등장하고 튀르키예 학생들의 학사 일정에 맞춰진 사례가 등장해요. 교과서에 실린 세계지도의 경우 튀르키예가 잘 보이도록 튀르키예를 지도 중앙에 배치하는 등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한국의 중고등학생들과 튀르키예 중고등학생이 서로의 다른 문화를 알아 가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열여섯 살에서 열여덟 살 가량의 어린 학생들이 학교에서 한국을 만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첫째로 ‘한국어’라는 소통의 도구를 가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둘째로는 한국어를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아가며 친근하게 여기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튀르키예 문화를 한국어로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튀르키예 사람이 많아지는 것은 두 나라 모두에게 좋은 일이 아닐까요?



《쉽표, 마침표》

화제를 전환해서 교수님께서 현재 담고 몸담고 계신 학교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영남대학교글로벌교육학부(국제한국어교육전공)가 올해 새롭게 개설된 학부라고 들었습니다.

이미향

영남대학교에서는 17년 전부터 대학원에서 한국어 교원을 양성했어요. 이제 학부 차원에서도 한국어 교원을 키우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선생님이 되는 것이 꿈인 학생들이 많은데요. 가르치는 데 재능이 있으면서 국제 마당에서 일하려는 학생들에게 한국어 교사의 전문성을 키워 주고 싶어요. 국외 학습자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이란 어려움 못지않게 보람과 성취감이 상당해요. 그들에게 필요한 건 전문성과 국제적인 감각을 갖추고 있는 한국어 교원이죠. 국제적인 감각이란 것과 관련하여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대학은 올해 ‘글로벌인재대학’이라는 단과대학을 꾸렸습니다. 한국어교육뿐만 아니라, 통번역과 비즈니스를 묶어 한 지붕 아래서 아울러 배울 수 있게 한 설계인데요. 학생들이 학습 필요에 따라 여러 학과를 자유롭게 오고 가면서 폭넓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죠.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국제 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성을 차례차례 습득해 나갈 수 있어요. 세계 곳곳에서 ‘전문성을 갖춘 한국어 교원’으로 활약고자 하는 학생들이 우리 학부에 들어와서 꿈을 실현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쉽표, 마침표》

교수님께서 이십 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국어 교육이라는 한길을 걸을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이미향

저의 원동력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것은 한국어에 대한 사랑입니다. 한국어는 물론이고 한국문화, 한국 사회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가져 왔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 역사스페셜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지요? 그 프로그램을 10년간 한 회차도 안 빼고 다 봤어요. 그날 어딘가 외출이라도 하게 되면 공테이프에 녹화 예약 버튼을 누르고 나갔죠. 인터넷도 없던 시절 다시 보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배운 것들이 저를 오늘날까지 이끌어 주었어요. 교학상장이라는 말처럼, 앞으로도 꾸준히 배우며 성장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썰표, 마침표**》 교수님께서 앞으로 펼치고자 하는 활동이 궁금합니다.

이미향

저에게 화두를 던지는 중요한 질문 같습니다. 제가 걸어온 길의 출발점이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하게 되네요. 역시 한국어 교재라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옛날 물자가 귀했던 시절에도 우리 말글을 보급하는 일에 앞장섰던 분들이 계셨죠. 국어 교재를 만드는 일이 대표적이었고요. 그 뜻을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한국어 교재가 필요한 곳에 좋은 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겁니다. (웃음)

《**썰표, 마침표**》 마지막으로 국립국어원 독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까요?

이미향

흔히 말은 문화를 담는 그릇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그릇의 재료도 모양도 달라요. 말이란 그릇은 이미 우리 생활을 담은 문화의 일부예요. 물을 담으면 물단지, 꿀을 담으면 꿀단지라는 예전 노랫말이 있죠. 어떤 문화를 담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듯, 그 말에 담길 어떤 내용이 말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그 말의 가치를 누가 살리겠어요? 우리 자신이 우리 말과 문화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말 풀기

문제 2

비둘기가 날개를 [피고 / 펴고]
날아갔다.

정답 찾기 Q

문제 1

동생은 고무줄을 [늘였다 / 늘렸다].

정답 찾기 Q

문제 3

누나는 제주도에 잠시 [머물었다 / 머물렀다].

정답 찾기 Q

문제 4

박 과장은 회의 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 / 조절]했다.

정답 찾기 Q

문제 5

오늘은 나 먼저 [같게 / 같게].

정답 찾기 Q



'우리말 풀기'에 참여하기

참여 방법

1. ['우리말 풀기'에 참여하기]를 눌러 주세요.
2. 문제를 풀고, 답을 적어 주세요.
3. 응모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 주세요.
4. '제출하기'를 눌러 주세요.

응모 기간

2022. 12. 6.~2022. 12. 19.

당첨자 발표

개인별로 알리고 《쉽표, 마침표》 2023년 1월 호에 공고함.

선물

당첨자 열 분께 커피 교환권을 드립니다.

2022년 10월 호 우리말 풀기 당첨자

조*현(6742)	박*우(1117)	이*진(1374)
고*숙(3148)	백*서(1443)	우*진(7201)
진*민(6171)	우*용(8992)	하*현(4429)
주*희(5149)		

우리말 풀기

문제 1

조종사는 (관제탑 / 관재탑)의 지시를 따랐다.

정답 찾기 🔍

문제 2

할머니는 바지의 해어진 부분을
(짜깁기 / 짜집기)하셨습니다.

정답 찾기 Q



문제 3

연구원은 (팔때기 / 팔대기)에 시약을 부었다.

정답 찾기 Q

문제 4

김 선생은 (골리기/끓리기) 좋은 성격이다.

정답 찾기 Q

문제 5

동생이 문을 (빠꼼/빠꼼)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정답 찾기 🔍

‘우리말 풀기’에 참여하기



참여 방법

1. [‘우리말 풀기’에 참여하기]를 눌러 주세요.
2. 문제를 풀고, 답을 적어 주세요.
3. 응모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 주세요.
4. ‘제출하기’를 눌러 주세요.

응모 기간

2022. 12. 20.~2022. 1. 2.

당첨자 발표

개인별로 알리고 《심표, 마침표》 2023년 1월 호에 공고함.

선물

당첨자 열 분께 커피 교환권을 드립니다.

2022년 12월 호 우리말 풀기 당첨자

조*현(6742)	박*우(1117)	이*진(1374)
고*숙(3148)	백*서(1443)	우*진(7201)
진*민(6171)	우*용(8992)	하*현(4429)
주*희(5149)		